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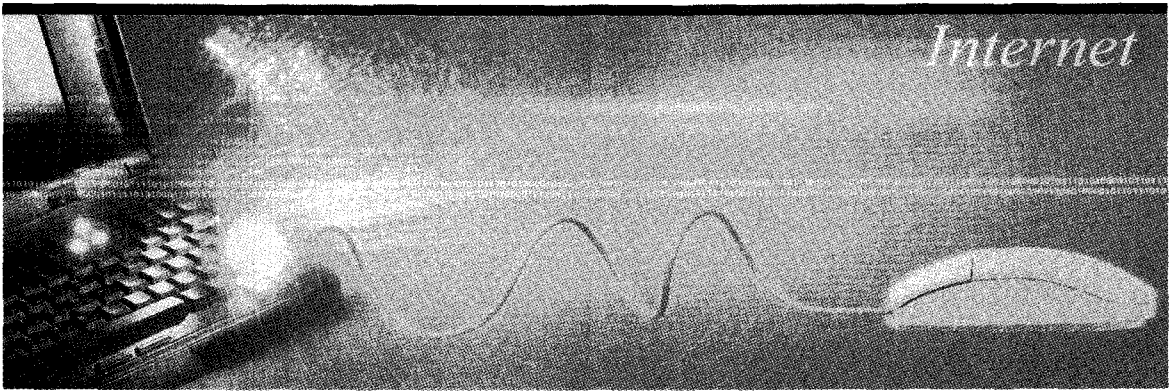
아파트도 인텔리전트 시대

인텔리전트 아파트 첫선

대한주택공사와 삼성물산 주택부문, KT, 서울이동통신은 12월 13일 '21세기형 인텔리전트 아파트' 표준모델을 개발, 시연회를 가졌다.

이 아파트는 집안의 가전제품 20여가지를 PC를 통해 원격제어할 수 있다. 밖에서도 집안의 가전제품을 가동시키고 입주자를 원격진료하는 첨단아파트다. <편집부>





인텔리전트 아파트가 개발돼 화제다. 외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정내의 각종 가전설비 작동상태 및 외부침입자의 확인, 실내온도 조절은 물론 취사 가능한 인텔리전트 아파트가 개발돼 12월 13일 삼성물산 주택문화관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인텔리전트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의 정책연구과제로 대한주택공사가 주관이 돼 삼성물산, 서울통신기술, 한국전기통신공사 등과 공동으로 2년 여동안 연구한 결과를 실용화한 것이다. 인텔리전트 표준아파트 개발은 사업비만도 총 8억 5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2억 2천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인텔리전트 아파트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맞춤형이 부부용 모델 외에도 재택근무자용, 노인용, 장애인용, 독신자용, 일반핵가족용 등 모두 6가지 유형의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기사작업과 옥야 등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맞춤형 부부용 모델을 먼저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인텔리전트 아파트는 핵가족화의 확산, 노령화사회 진입, 독신자의 증가 등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유형이나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6개 모델을 선정했다”며 “각각의 모델에 알맞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인텔리전트 아파트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주택전시관에서 문을 연 맞춤형 가족형 모델은 원격제어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아파트로 인터넷 전용선과 난방조절, 조명조절, 외인 침입 및 도난방지 기능 모두 23가지의 첨단시스템이 홈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

인텔리전트 시범주택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인텔리전트 아파트의 표준모델 제시는 난립하는 정보통신 아파트의 통신과 설비 표준화를 통해 집담주택 이미지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